



1952년 김동철 씨의 가족사진.
부인 김엘렌나, 아들 김와실리.

어머니의 뜨겁고 눈물

나는 14세 되는해에 아버지를 잃게 되었다. 그때로 벌써 35년이 지났으니 내가에 물도 많이 흐르고 사별도 많았기때문에 나의 기억에서도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의 부친 김동철은 1912년에 원동현강 면내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소년 시대나 유년시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는 모른다. 어머니에게서 들은바에 의하면 그는 1939년에 카사흐공화국 크누오르다 시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일년동안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다가 소련 전쟁시기 1941-1945 기간에는 김병화 명칭 글로즈에서 당조직원으로 일하였으며, 여유시간을 리용하여 같은기간 내에 하뉴킨트 국립종합대학 법학부를 통신방법으로 졸업하였다. 파쇼독일을 반대하는 소련인민의 조국전쟁이 끝날 무렵 1945년 8월에 아버지는 소련군대에 소모되어 극동사령부 전선에 배속되어 북한 해방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북한에 들어온후 아버지는 제25군단 정치부 민간사령부 지도원으로 일하다가 1946년 6월 불어는 역시 소군 정치부에서 지도하는 북한 정부 내각고급직조간대학에서 정치학교원으로 1948년 말까지 일하고 북한에서 소군이 철퇴하여 나간 다음 국력과 장적을 넓혀 북한 공민으로 전직하였다. 그후 공화국 최고 재판소 부소장으로 일하였으며, 6.25 동족상쟁이 벌어치자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군 최고군사재판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1952년말에 전연부대원인 사업시찰중 아주 심한 포격을 당하면서

어렵고 중상을 입게 되어 모스크바로 후송되어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불구가 되었고 동족 상쟁이 끝난 직후 아버지는 권근되어 철도성 차관 겸 정외국장으로서 일하게 되어 1957년 말까지 지내던 북한에서 사냥감포가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어 벌써 수백만 명이 철적 후복 혹은 연광병이나 농촌에 추방되고 있으며 1958년 봄에 아버지는 철도성 차관 직책으로 불어 철직되어 고북성 출판사 사장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당년 10월에는 그 자리에서도 철직되어 집에 갇혀 있었으며 6월엔 귀국할 수속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1948년에 조선국적으로 전격한사한 이기때문에 먼저 조선국적에서 제적 되어야 또 다시 소련 국적으로 넘어갈수 있게 되었다. 북한 정부는 차일피일 늦추면서 제적 수속을 끌다가 1958년 12월 30일에는 정치안전부 기관 2명이 우리집에 와서 당중앙 간부부를 호송한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간혹 나는 아버지를 다시는 못볼았다. 그후 일주일 지난다음 정치안전부 기관 2명이 우리집에 와서 모든 짐작, 책들, 무엇이나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수색 검열한 다음, 모든 한방에 걸어 장치고 출입문을 잠구고,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권총 한자루와 출근시 가지고 다니시던 들라방, 수첩들은 몽땅 가지고 가면서 "집은 하나로 다치지 말라고" 하였다. 집에는 그 외에도 또 권총 한자루가 있었더라 "그 권총은 아버지가 소련 군대에서 이 북부시 갖고 다니던 것이라고" 어머니는 말해주시면서 그 권총을 문밖에서 석탄줄이 있었더라 거기 석탄

밑에 그것을 파놓았다. 이렇게 집에 있는 모든 가정등을 전
 부를 몰수당한 다음 어머니는 소련대사관에 달려가 방포를
 요청하였던바 (당시까지 어머니의 극적인 소련국적이였다)
 그후 2-3일이 지난다음 우색물위하여 왔던 군관등이 다시
 와서 부분적 짐들, 즉 아이들 물건과 어머니의 물건 얼마
 간 도둑 나미주었다. 그때에도 겁이 나서 어머니는 권총에 대
 하여서는 어수살로 늦혀졌다. 그후 약 10일 지난다음 몰수한
 우리 집을 전부 다 빌어간 다음 우리 사택 코방을 압수하여
 다른 가족에게 넘겨 주었다. 그 가족이 바로 박영빈의 가
 족이였다. 당시 박영빈도 당중앙 조직부장 겸 정치위원까지
 하던 북한 일류간부가 대외부영 차관으로 죽어떨어졌으나
 아직까지는 풀이그다지 좋지 않고 끈 끈하게 단 너스너,
 어주구 결내를 든 그 집 라리아 어머니가 소련서 나온
 아즈너니들이 다 앓고 단니는 한복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
 니며 동사부소 열성자로서 치마저고리를 단 단히 흔들었다. 이러한
 처라를 바란은 동사부소 정치부장 군관등에게 아주된로하였다.
 그것은 소련서 나온 가족들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였다.

박영빈씨의 가족이 벌써 우리집에 와 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박영빈의 아들이 석한갓이러 석한굴에 나갔다가
 어머니가 감추어놓은 권총을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그것을 알하였다. 라리아 아즈너니는 그 말을 들자 그
 즉시에 우리방에 나와 어머니 하고 물어보리틀 "이 집에
 동철 선생이 사 용하던 금지 불품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때 나의
 어머니는 대답하기를 "그런것은 절대 없다" 하였다. 그 대답을
 들자 라리아 아즈너니는 어어 자기방에 돌아갔으나 어머니

입장은 대단히 황당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 아즈너나가
 아버지의 권총을 발견하고 달려나와 슈테르기로 들은 것을
 단번에 알아채웠다. 어머니의 심장은 세척기 작동기가
 돌아가듯 하였다. 왜냐 하면 이 물체는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또
 겹쳐 감한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생-사에 대한 문제였다.
 이런 사건이 없어도 소년에서 나온 간혹들이 가는 소위 "허가이
 가 조직한 소년종파 ^{반김인성} "구테라 준비"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
 는데 권총 두자루가 집에 있었으니 그 고소에 대한 증거물어
 라고 할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어머니는 이 권총
 문제를 밤으로 해결하여야 되었다. 내일 아침 9시 11번
 등사부호가 일하게 되니, 그때까지 이 문제가 반듯이
 밀려날것은 확연한 일이었다. 때문에 어머니는 밤 열
 시경이 되자 그 권총을 집에 들여다 그것을 샅샅이 보재기
 벗기고 다른 보재기로 그 권총을 샅샅이 나에게 주면서 "알라기
 를" 이 권총을 다른 사람들에 보지 않도록 은밀히 가져
 가서 대동강에 차넣으라"고 하시었다. 나는 어둠은 밤에
 금물품을 들고 밖으로 나가기 대단히 무섭었으나 눈물겨운
 어머니의 눈길로 쳐다보니 이를 깎물고 아무 대답도 없
 음을 얻고 밖으로 나가 대동강을 찾아갔다. 이것이 바로
 열시라 하여도 정월의 (정월의) 환풍은 되었으나 걱정은
 시간으로 대동강에는 간혹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보였으나
 는 무섭히 가장 길어쭉한 다리 한복판에 이르자
 책처럼 저대의 밑에다 끼고 가던 물건을 대동강에 차
 넣고 가깝은 골에 세워거나 없는가 하고 도리켜 보다
 계속 선교리 쪽으로 걸어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집으로
 조심스럽게 사방을 도리켜 보면서 왔다.

내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니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낭독하는 것이었다. 나도 대동교 중학에서 불어 집까지 오는
 동안 떨리는 몸으로 수차 뒤를 돌아보면서 모런차 집에 들어
 선 나는 어머니의 애타운 심정을 알아차리고 나도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없는 울음을 흘렸다. 왜냐하면 길에
 방짐에서 우리 울음소리를 들으면 안락했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침대에 눕어자던 나의 어린동생은 가까이나 눈을 북비면서
 무슨 영문인지 알수없이 어머니하고 나를 쳐다 보다가 역시
 어머니 목을 끌어안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목에 내어 달린
 월로자를 어끌어 자기자리에 다시 돌려주고 어불을 덮어
 주면서 나의 울음소리를 달래주시기를 "아버지의 권총을 샀
 던 보재기야 월로자의 울음값 "권총" 잘 싸서 문밖 에
 갖다 버려 줄게"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계속
 하여 달래주시기를 "그 울음값 권총은 네가 월로자하고 감춰
 기 울음을 들면서 그렇게 좌불은 것이야"고 대답하라고 하
 였다. 나는 그때 그것이 진실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달래주시니 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결심하고 일어나자
 다가 가까이 어머니는 일어나 계시지만 잠이 들지 않는 것이
 확연히 알리었다.

그 이튿날 오시경이 되자 드디어 정치안전부 규관 2
 명이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을 나는
 학교에서 오자 보게 되었다. 안전부 규관들은 어머니하고
 집에 있는 권총을 자위적으로 내어 놓으라던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권총은 무슨 권총이요, 권총 한자루 있던 것을 몰수
 하여 가서 또 무슨 권총 살수 없나?"하고 완강하게 대답

하였다. "권총들이 집에 없기야 몇자루 없지만 그거야
 전부다 원로자 놀음같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책상, 원
 대 밑에서 또 책가방에서 몇자루 더 보았다. "어디의
 권총들은 또 어디에 더 있을것입니다" 하였다. 성이 돌아오른연전
 군관은, "아니 석한굴에 권총 한자루 묻어 놓고, 솔직히 고백하
 지 못하겠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그때에 어머니는
 잠깐코 앉아서 앉으니 안전군관 한명이 밖에서 나가 자기
 손으로 "권총"을 파내는 것이었다. 그 군관은 그것을 들고 들어
 와서 어머니 눈앞에서 보재기를 해치니 그야말로 정말
 해재비 "권총"이었다. 군관은 기대와 어그러진 일을 당하고
 보니까가 막히었으나, 밑고에 의하여 와서 수색하는 일인고로
 옆방 누구도 불러다 증인세울의 없었다. 하는수없이 연제는
 동사무소에 가서 옆방아프러니를 불러서 따로 심문하고 그다음
 어머니를 불러가야 하였다. 사실 모욕에는 옆방집 다르너와
 4-8 세되는 어머니는 잠시간 파출소에 가있었다. 그들이 집
 에 돌아온후 약 3시간 경과한다음 파출소 내무원은 어머니
 에게 호출장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 호출장은 파출소로 불러가
 아니라 시내내무부에서 호출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호출장
 을 바다 쥐니 가슴에서 온 냉뿔이 떨어지듯하여 아무말도
 못하고 눈물만 쪽흘리고 앉아있었다. 내무원은 돌아서 나가
 면서 "내일아침 9시 정각에 꼭오셔야 합니다" 하였다. 어머
 니는 세상일이 다종 탈된것으로 인정하시곤 계속 눈물을 흘리시
 다가 몸을 가시어 잠속한다음 나와고 다름과같이 말
 씩 하시었다. 아나 이점이 나를 걸거할 호출장이 분명
 한데, 만약 내가 갔다가 점심때까지 오지않으면,

하고, 얼마 안되는 돈을 보아^내서 이 돈에서 얼마만큼
 꺼내며 ^{방향이} 사다가 차를 그리며 점심, 저녁을 먹고
 저녁에도 안 보^내면 또 무엇어런지 사다가 월로라도 꼭 남^어어
 적은 ^{내일 아침엔} 다음, ^{우리의} 방향은 열대를 꼭 잡고, 월로라도 데리고 길을
 물어서 소련 대사관에 가야 된다고 하였다. 「대사관에 가서
 는 눈치 보바르게 소련 아저씨들이 나오면 자서한 이야기를
 하고 대사관 내복로 안 내^어며 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복한}
 내우원 추비대에 붙잡히면 끝장이 난다고 하였다. 「대사관
 안에 들어가서는 대사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방 옆에
 복도에 앉아 있다가, 직원중 누가 물으면, 아버지, 어머니
 다 검거되어 감옥에 가시오 우리는 갈데가 없어서 여기
 왔으나 소련 고아원에 보내여 달라고 부탁하라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공책장에 「아버지 이성영
 생년월일 출생지, 조선 왕국 (연월일, 아버님 직위, 다음
 역시 어머니의 생년 등) 을 적은 다음 자기는 소련 공민이기
 에 귀^속하여 달라는 것만 아니^면, 아들이 소련 공민인. 적에
 배^우랐으니 추^속하여 고아원에 보내여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
 을 쓰시고 아래에 추^속하셨습니다. 이 종이장을 나에게
 주면서 어머니는 「아주에게도 보여지 말라고 부탁한 다음 다만
 대사관에 가서 그 직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하시니 다음
 어머니는 ^{다음} 앞은 천 머리수건을 얻어다가 가정내에 있던 전체
 몇 천원되는 돈을 그다 놓고 몇번 걸쳐서 갔은 다음 그것을
 나의 가슴팍 위에 ^후대^어하시면서 「전체 돈어타준 이 ^비분^원에게
 조금씩 절약하여 무엇이든 베풀것을 사서 월로라도 잡^어것어
 주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소리없는 울음을 아주 서투르게

을르시였던바 이때 어머니의 그 눈은 눈물은 나의 팔위에
 흐르고 있던 순간 나는 그 눈물이 몇일전에 남편을 잃고 또 내일
 에는 잡혀가니 아이들까지 잃어버리게 될 그 눈은 원한을
 식근 어머니의 깊은 심정으로 불어 불어오는 눈물이며서 아주
 뜨겁다. 나는 비로써 어머니에 남이든 너였지만 사담이란
 억울한 혐의에 비하러 남편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
 까지 나에게 복학하게되니 어머니가 그런 뜨겁고 눈물로 흘린
 것이 누구의 죄악어떤것을 알지되었나.

어머니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지내시고 아침 8시경이 되자
 준비하여 가지고 다시한번 나에게 주의를 주고 평양시내무부에
 가시었다. 나는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신 다음 어머니가 ^{남은}
 향신대로 방물할대를 방앞으로 잔구고 월로라와 돌니서 여러
 먹던 음식물어 같은것으로 놓아 먹으시면서 있었다. 그런데 벌써시
 간은 2시가 되어도 어머니는 오시지않아 나는 방물을 열고 밖에
 나가 방방과 호간과 ^물개를 싸가지고 ^{모든}드름 ^말방집 ^{아르}
 러님을 만나니 물리틀 「너의 엄마는 어디로 가니 네가 방
 싸온거 갔다라 오느라야?」 하던 물은 말에 나는 대답하리틀
 「나는 ^꼭 ^{허는} 모르나, 어나 장막당에 가신것같다고 대답하
 려서 신중히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허시아 측담에 「불행중
 에도 당행은 꼭있다고, 집에들어오니 어머니는 집에 와 계서
 늘것이었다. 나는 너무도 반감아서 듣고 들어오던 방방과 란자는
 식학위에 ^{부러}려진 어머니를 붙잡고 물었다. 그러나 어머니도
 월로라로 물었다. 어머니는 ^{얼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후
 에서 권총전에 대해서 모래 줄는다라 내가 백백하고 계속우기니
 할수없이 집으로 가라곤 허면서, 어리런 가지받고 집에 꼭있으라곤
 하였다고 하였다.

그후 어머니는 약 6개월간 계속 풍사후, 내후목등이
호출당하여 다니었다. 호출이 끝나자 우리가족은 화물차에
실태와 서평양 보충강변(한호출막) 약 6평방 미터라도
밤에 억척하였다. 이골에 오니 우리와 똑같은 형편을 당하고
있는 가정의 주노라 있었다. 그것은 김철성, 김원길의 가
정뿐이었다. 모든 가정들은 6-7평방 미터가 되는 한호출막, 위생
조건하곤 거리가 벌리리 목욕탕이나 세면 시설같은것은 상상도 할수없는
형편에서 평양기숙의 강하철로 지내고보니 무서운 호출과 전염병에 직면
할것이 화연하네, 아어들이 학교 갈때는 벌쇠가 가까와 오고, 난방장치라
고는 없고 또 집을 덥힐 화목이나 한같은것도 없었다. 세집에서
니들은 서로 호이하고, 평양에 계속 이었다하여 남편들에 대한 소식
이나 행방을 알수없는 형편에서 소련 대사관을 통하여 소련
입국 허락을 받아, 다같이 모스크바에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
키로하였다. 그러나 우리 세가족은 소련 외무성의 지시에 따라
여 모스크바에가지않고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모셔되었다. 모스크바 중앙
정부의 우크라이나 공화국 정부에 우리가족들의 요구조건들을 해결하여주
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던것이다. 어머니는 우리행례를 데리고 소련
에 친척이 없는 조건하에서 약 6개월동안 남의 세방집을 빌어 살면서
우리들은 학교에 다니고, 어머니는 프라브라소 공장에서 일하였다.
반년여 지난이후에 우리들은 세방집에서 여사하여 소련의 육한 사회
보장법에 의하여 우리에게 무상으로 출산하여 나오게 되었으며
나와 동생 월로라와 복암자를 낳은 자분으로서 국가보조금을 받
으면서 공부, 대학까지 나왔다. 우리 형제는 지금도, 종 11년
어려운 시절 때나 또 주구의 생일 때이면, 남편이 없이 그 러막
할 때에나, 남쪽 나라로 불어 올리는 소식, 그 남편과의 상봉을 기다리면서

비문나, 눈이 내리나 하루도 비바짐없이 그 공기 불결하고 바쁜 운동
 에 열심히 참가하며 풍돈을 벌여 우리 형제를 취세부노라고 그 얼마나
 고생하였는가 하느것을 회생하면 차라리 농도 맛 있는 음식도 눈물어 내리
 고 목이 12에서 먹지 못하고 한숨으로 북 "하계 지내권 한다. 어서
 나는 30년 동안 계속 낙우하시면서 앞으시다가 끝내 자기 남편
 을 만나지 못하고 가슴에 원통품은채 1988년에 별세하시었다.
 어찌 우리 형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원통 들어 들어야 하겠나,
 그것은 돌아가신 부모들을 되살게 한다는 말도 아니고, 또 누구를
 죽어겠다는 말도 아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그의 묘지는
 꼭 알아야, 그대도 우리들은 여기에 있으나 동방예의국의 후손의
 대담을 할것이 아닌가? 나는 작년-1994년, 12월 28일
 에 서울에서 열리었던 구국전선 문화 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아버지의 6촌 동생 김동하를 만나았다. 그이는 1948년도에
 평양에 오셨나라 나의 아버지를 만나본일이 있었다고하시었다
 나는 그이를 만나서 7촌 아저머니네 집에가서 하룻밤과고왔다 그때
 그이는 말씀하시기를 북한에 길이 멀리게 되면 꼭같이 찾아가서 그
 형님의 종적을 찾아보아야 할라고하시었다. 나는 그대에 대답하
 기를 꼭 그렇게 해야 하겠나? 하셔서 「반역에 현세에라도 힘
 으로써 할복있는 일이라면 힘들다하여 애로보고, 눈이모자라면
 나 비탈로 물어뜯어서라도 아버지 일을 해결하고 원한들을 돌아
 가신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 그 부모를이 자식답은 보답을 할것없나
 라고 하였다.

김 와 실 리

김 월 로 자

1995년 2월 20일.